현대차 미입금…車공장 합작법인 지연

광주시, 법인 재무건전성 확보·투자금 유치…"이달 예정대로 설립"
이사회 3인 광주시·현대차·광주은행 몫…이 시장 대표 선정 고심

광주시·현대차 합작법인(주식회사) 설립이 일부 투자의향자(기관·기업)의 투자금 납부 지연으로 늦어지는 탓에 법인 설립에 대한 각종 우려가 제기되면서 광주시가 애를 태우고 있다.

광주시는 "일부 투자 기업의 내부의사 결정이 늦어지며 회사 설립 자금 입금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8월 중 설립 일정에는 차질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지나친 의혹 제기가 투자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 설립을 앞두고 각종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이 애초 협약대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를 포함해 투자 의향을 밝혔던 기업과 기관들이 '투자금 입금을 차일 피일 미루면서 각종 조건을 내걸어 광주시를 흔들거나 길들이려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 알려진 산업은행 외에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한 축인 현대차와 현대차 협력업체 7~8곳 등 상당수 투자 의향자들이 투자금 입금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투자 의향 기업과 기관의 내부 의사 결정 지연으로 투자금 입금이 지연되고 있으나, 오는 12~14일 집중적으로 투자금이 입금될 예정이며, 이는 현대차와 그 협력사도 마찬가지"라며 "이달 중 주주간 협약과 발기인 총회를 거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투자금 입금 전 원금 손실 위험을 최대한 줄이고,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광주시가 애를 태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산업계 한 인사는 "얼핏 보면 투자자의 정당 행위로 보이지만, 투자기업 측 요구를 하나둘 들어주고 보장하다 보면 합작법인은 매출이 발생하기도 전에 재무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모든 (발행) 주식을 조건 없는 보통주로 하기 위해 일정이 늦어졌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합작법인 재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풋옵션(특정 상품을 특정시점 특정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등 투자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이끌어내느라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 초 광주시·현대차 투자협약 당시 공개한 '실투자비 10% 투자보조금(인센티브) 제공 계획'이 최근 의회 보고 절차를 거치며 뒤늦게 논란이 인 것도 '주요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를 위한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보장받으려다 자초한 논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주요 투자자들이 배당비율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이익 발생 전 잇속만 챙기려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합작법인 자기자본금 2300억원은 광주시 483억원(1대주주, 21%), 현대차 437억원(2대주주, 19%), 광주은행 260억원(3대 주주, 11%), 산업은행 250억원(4대주주, 11%)에 나머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조성된다.

이에 따라 합작법인 이사회 3인은 1~3대 주주가 파견한 인사들 3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이 대표이사가 될 전망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현재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적합 인물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합작법인 대표이사 선임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 ▲노사민정 대타협 산물인 광주형일자리 정신을 구현해낼 인물인지 여부 등을 두루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3대 주주로 광주은행이 결정되면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지역 목소리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섬 축제 썸 페스티벌 15만명 다녀가

삼학도 일원 열려…10일 폐막
섬 민속경연대회 등 행사 다채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라는 주제로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열린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15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막을 내렸다.

섬의 날 행사는 지난해 8월 8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후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사람, 만남, 평화, 연결, 꿈, 자연, 행복, 미래 등 섬이 지닌 8가지 가치를 제시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섬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

섬의 날 기념행사는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섬의 모든 것을 알리고 알기 위한 참여와 관심도 뜨거웠다.

국가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박지원·서삼석·윤소하·윤영일 국회의원, 전국 섬지역 시장·군수, 지방의원, 전국 53개 지자체, 기관, 단체와 103개 섬 주민이 대거 참여했다.

기념식에서 이낙연 총리는 그동안 전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국립 섬발전 연구기관'을 설립해 섬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라남도는 섬 발전 분야 대통령 기관표창을,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은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글로벌 섬재단 곽유석 부이사장은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전남지역 기관 단체에서 정부 포상을 대거 수상했다.

전국의 섬 주민 400여 명이 유사 이래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섬에서의 삶의 애환과 성공스토리 등을 이야기하고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섬 주민 대회와 학술대회도 열렸다.

섬의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해 섬 주민들이 참여하는 섬 민속 경연대회와 섬 특산품 홍보를 위한 경매 이벤트에선 행사 기간 모두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어린이 그림대회·동요대회, 해양직업 체험관, 스타셰프 푸드쇼, 요트체험,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케이팝(K-pop)콘서트 등 부대행사는 어린이, 청소년이 대거 참여해 섬의 날 홍보에 기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처음으로 열린 섬의 날 행사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전남에서 섬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섬으로 육성, 블루 이코노미를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공항 올 이용객 55만명

최근 발생한 한일 간 무역 갈등으로 일본 하늘길이 좁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증가 추세가 멈추지 않은 채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수는 올 들어 7월 말 현재까지 55만 5000여 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9만3000명)보다 189%(국제선 258%)가 늘어난 규모다. 오는 21일 제주항공에서 중국 장가계와 연길 노선 신규 취항을 앞두고 있어 하반기 이용객 증가세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무안국제공항은 2021년 광주 민간공항과의 통합에 대비해 활주로 등 기반시설 확충, 대중교통 연계, 국제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난 10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2019 전남귀어스몰엑스포'에서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전남 지역 마을별 특색을 현지 어민들에게 설명듣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빈집·일자리 등 어촌계 정보 듣고 귀어 결심 했어요"

전남 귀어 스몰엑스포 성료
250여명 중 100여명 귀어 희망

전국 귀어 희망 도시인 250여 명이 목포에서 전남 귀어에 대한 희망을 품었다. 이들 가운데 100여 명은 전남으로의 귀어를 결심하고, 80여명은 장·단기 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 10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지난해 장흥에 이어 2회 귀어 스몰엑스포를 개최해 도시민과 어촌계가 직접 소통하는 장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함께 개최한 2019 전남 귀어 스몰엑스포에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에서 250여 명의 귀어희망 도시민과 전남 우수 어촌계 49곳의 어민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엑스포에서는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과 전남 대표 어촌계가 상담을 통해 80여 명의 도시민이 전남으로의 귀어 의사를 내비쳤다. 이들은 가족들과 함께 오는 9월부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수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가 함께 운영하는 단기 어촌 정착 프로그램 '전남 어촌 탐구생활'과 장기 어촌 정착 프로그램 '도시민 어민되다'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경식 전국어촌계장협의회 전남지회장(여수 임포어촌계장)은 "전남 어촌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언제든 편안하게 찾아와 상담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시민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전남 어촌의 수산물, 자원이 결합한다면 전남 어촌이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귀어 희망 도시민들도 이번 엑스포에 만족감을 표했다. 경기도 부천에서 온 김영오(53)씨는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귀어를 할 생각이었지만,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고민이 많았다"며 "이번 엑스포에 참여해 상담하면서 빈집, 일자리 등 실질적 어촌계 정보가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전공대 설립 계획안 13일 국무회의 보고

이사장은 한전 사장 유력
총장·교직원 공모·채용

한국전력 이사회가 가결한 학교법인 한전공대(가칭) 설립 및 법인 출연안(기본계획안)이 13일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한전은 이후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한전공대 설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오는 13일 국무회의 때 기본계획안을 보고할 예정이다"며 "정부와 지자체, 한전이 대학 설립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10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계획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교육부에 학교법인 설립 신청을 하게 된다"며 "교육부는 3개월 내 처리를 하게 돼 있어 연말 내 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이사장은 한전 사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법인이 설립되면 역량 있는 총장과 교직원 공모와 채용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학생은 대학원생 600명, 학부생 400명, 외국인 학생 300명 등 총 1300명이다. 교수와 일반 직원은 각 100명이다.

한전공대는 나주시 부영CC 부지 120만㎡에 들어설 예정이며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설립비는 6210억원, 연간 운영비는 64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투 자 하실분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현금 3억원이상, 법적 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공무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장성토지 매매!!
■ 4층,30평Apt50채 건축부지 〈1가구 전원주택지로 최고〉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나대지
■ 면 적 : 3,646㎡(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좌측 : 바로 옆 피톤치드 편백숲, 꿈의산책길·오솔길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평당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 의 010-3602-3881(주인)

公國認家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9기)	광주교육대학교(20기)
모집/과정	· 금요일 오전반 2019. 9. 6.(금)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9. 9. 7.(토) 09:10 (특급반)	· 금요일 오후반 2019. 9. 6.(금) 14:10(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9. 9.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19. 8. 1(목) ~ 9. 7(토)	
수업기간	2019. 9. 6(금) ~ 2020. 2.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09:10~13:00	14:10~18:00
수료후 특전	·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학교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 ~ 사범)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KWANGJU WOMEN'S UNIVERSITY http:/always.kwu.ac.kr	·문 의 : 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